

2011년도 평의원 연수 꾸리아별 발표내용(요약)

위로의 샘 꾸리아

2011년에는 연중계획대로 연간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다. Pr. 4 간부 피정은 성모 영보 피정의 집에서 수원 가톨릭대학교 최인각 신부님을 모시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전단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야외행사는 Pr. 별로 했는데 출석률이 좋았다.

전단원 교육도 성당에서 했고, 당진 신리 성지로 전단원 피정을 갈 예정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연중계획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이다.

기쁨의 샘 꾸리아

2011년도 목표를 간부의 정예화, 레지오 확장,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 정해 실천했다.

중간에 간부의 이동이 있었다. 조직현황으로는 Pr. 이 8개에서 10개로 늘었고 청년 Pr.이 신설되었다. 인원으로는 74명에서 성인이 87명 청년이 13명으로 100명이 되었다. 협조단원은 40명이다. 레지오 행사를 하면서 단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다. 간부의 정예화를 위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소성무일도 교육을 통해서 고급단원이 증가하도록 하겠다.

바다의 별 꾸리아

2011년에는 레지오 확장이 목표였는데 조금 확장되었다.

내년에도 Pr. 2 개를 분단시키고 100명 단원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그 단원들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다. 협조단원도 늘리도록 하겠다. 선교활동을 통해서 입교와 입단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다.

신자들의 도움 꾸리아

단원수가 57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Cu.를 존재시켜야 좋을지 자괴감이 들었다. 신부님의 사목방침이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레지오이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이동이 어렵다. 지역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새단원을 입단시키기 어려운 여건이다.

성가정의 어머니 꾸리아

젊은 레지오 단원들이 많아서 부족한 점이 많다. 순명의 정신을 강조하니 올해 Pr. 단장 피정에 100% 참석했다. 레지오 단장이 소공동체의 구,반장을 겸하게 되어서 소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레지오 활동으로 연결되었다(예, 방문, 입교활동 등). 레지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교본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젊은 엄마들이 많아 육아의 문제로 활동을 하더라도 일찍 끝낼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증거자들의 모후 꾸리아

단원들이 젊은 사람들이라 직책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 행사를 해도 하교하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시가 넘으면 출석률이 저조하다. Pr. 4간부 피정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전단원 피정을 생각중이다. 올해는 전단원 교본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연도교육을 할 예정이다.

10월에 야외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일치의 모후 꾸리아

잠실동의 경우 4개의 여성 꾸리아가 교육이나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다. 같이 협력해서 하니 협조도 잘 되는 것 같다.

인원 구성은 노년층과 젊은 층이 반반이다. 행동단원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협

조단원이 부족한 편이다. 간부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간부의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부의 정예화가 쉽지 않다.

믿는 이들의 어머니 꾸리아

잠실 성당 2, 3지역인 리센츠와 트리지움에 사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시 7개 Pr.이었으나 현재 10개 Pr.이며 청년 Pr.이 1개 포함되어 있다. 단원수는 67명이다. 지역별로 Cu.를 설립하는 것이 신부님의 사목방침이기 때문에 단원화장을 해서 Cu.를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한 지 3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임대계약기간의 만료, 매매 등으로 이사가 잦아 레지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활동의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단원들을 찾아 동참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모든 이의 어머니 꾸리아

2010년 모든 이의 어머니 꾸리아에서 분할되어 경력이 일천하고 많이 배우고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1지역인 엘스에 거주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꾸리아다.

단원들이 젊은 반면 직장, 이사 관계 등으로 변동이 많아서 단원이 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활동도 어려운 편이다.

금년에는 연중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내년에는 직책교육에 충실히 참석할 예정이다. 금년보다 더 활성화 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비의 모후 꾸리아

금년에는 꾸리아의 중점목표를 중심으로 실천을 했다.

레지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단원 교본 읽기를 실천했다. 실천표를 기준으로 주 회합 시마다 확인을 했다. 결과로 전체 단원 181명 중 170명이 교본 읽기를 했다. 사명감 고취로는 꼬미씨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피정에 잘 참석하고 있다.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는 교구에서 주관하는 선교교육과정에 6명이 7주 동안 참석하였고, 내용이 너무 좋아 전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본단 차원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가도선교활동을 했으며 31명의 입교신청서를 접수했다. 고급단원의 증가활동으로 Pr.사업보고 시마다 독려를 해서 36명의 고급단원을 확보하고 있다.

청소년 Pr.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청년 Pr.이 설립되었으나 이사, 결혼, 직장, 군입대 등으로 금년 3월 해체되었다. 보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계시지 않아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2년에도 꼬미씨움의 중점목표를 기준으로 양보다 질적으로, 계속해서 고급단원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성조들의 모후 꾸리아

18개 Pr.에서 19개 Pr. 으로 증가했다.

성당 리모델링 관계로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도의 목표에 대해서는 신임단장께서 구상하여 보고를 할 예정이다.

전임 단장님이 이루셨던 모습대로 잘 이끌어 가겠다(신임 백종기 단장).

평화의 모후 꾸리아

꾸리아의 분할을 목표로 했으나 신부님의 사목 방침으로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65개의 Pr.이다. 단원의 정예화로 장기 유고자를 정리하여 단원이 감소되었다.

리모델링 관계로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주회합을 가정에서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2011년은 교육 피정을 계획대로 잘 했다고 생각한다.

2월에 전단원 사목방침 교육을 실시했고, 3월에 아치에스 행사를, 5월에 야외행사, 6월 4 간부 피정을 했고, 9월에 Pr. 친목회를 실시했고 또 전단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단원 피정이, 11월에는 연도교육을, 12월에는 연차 총친목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2년 중점사항은 신부님의 사목방침을 따르고, Pr. 활성화, 적극적인 선교활동,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이웃에 귀감이 되는 단원이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선교교육에 참여하고, 냉담교우 회두권면에 힘쓰며, 신영세자를 잘 돌보고, 성경공부, 레지오, 성가대 등 단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냉담교우에 대해서는 성사를 보게 하고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겠다.

교회의 어머니 꾸리아

신부님과의 면담에서 3 가지 목표를 주셨다.

첫째는 레지오가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다. 둘째 소년 Pr.이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 된 것 같다. 어른들과 같이 장애인 목욕봉사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익숙해지니까 아이들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인성에도 좋은 것 같다.

셋째 청년 Pr.의 설립이었는데 청년들과 많이 만났는데 우선 청년들이 너무 바빴다. 교회 안에서 주로 교리교사, 성가대, 복사 등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레지오를 하라고 하기에는 곱고려웠다.

지역적 특성으로 단원을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단원들을 잘 돌보아서 내년에는 고급단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겠다.

매피의 모후 꾸리아

4~50대에 입단한 단원들이 6~70대가 되어 손주를 보아야 한다고 하며 레지오를 쉬는 경우가 많다. 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신부님께서 Pr.의 수를 20개로 늘려서 꾸리아를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주셨다. 꾸리아의 분할을 위해서 Pr.을 개편하고 수를 늘렸는데 오히려 단원의 수는 160명에서 50명 정도 줄었다. 5개의 Pr.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다.

2011년 교육 피정은 2월에는 전단원 사목방침 교육을, 3월에는 냉담자 회두권면 활동을 구역 소공체와 함께 교육을 받고 사례 발표도 들고 나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전입교우에 대한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Pr.별로 활동배당을 주어 돌보도록 하겠다. 새영세자에 대해서는 교리교육기간부터 돌보아서

입단시키도록 신경을 쓰겠다.

2012년에는 160명의 행동단원을 목표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상 입교가 쉽지 않다. 교육은 열심히 했다. 피정은 4간부 출석률이 좋았다. 9월 중에 전단원 피정을 예정 중에 있다.

성삼의 궁전 꾸리아

금년에는 신부님 사목방침을 따라 실천했다. 교육과 피정으로 2월에 전단원 사목모표 교육, 3월 아치에스 행사, 4월 전단원 피정, 6월 Pr. 4간부 피정을 했다.

4 간부 피정은 천호성지에서 “성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신부님이 강의를 해 주셔서 반응이 좋았다. 아쉬운 것은 참석율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금년도 남은 일정은 9월에 전단원 교육, 10월에 야외행사, 11월에 연총이 예정되어 있다. 연수 오기 전에 금년도 전반기 활동을 정리하면서 Pr. 단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꾸리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율이 떨어지는 것과, 지난 번에 세나투스 주관으로 꾸리아 단장 연수를 다녀 온 내용을 설명하고 금년도에 남은 일정에 대해 협조를 부탁했다.

꾸리아가 분할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인원을 분할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Pr. 있어서 꾸리아 4간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위기를 모면한 경우가 있었다.

2012년에는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고 단원들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토론대회를 실시해 보려고 한다.

소년 Pr.에 대해서는 창설계획이 있었으나 보류되어 보좌신부님이 가신 뒤에 추진할 예정이다.

말씀의 궁전 꾸리아

현재 223개의 Pr.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60명 정도가 입단과 퇴단을 반복하며 전체적인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꾸리아의 분할은 단원 확보를 더 하고 신부님이 기신 뒤에 할 예정이며, 현재의 단원들을 신경써서 관리하겠다.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연총은 레크레이션을 겸해서 사례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성공적 이었다. 단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좋았다. 야외행사도 레크레이션을 가미해서 했는데 참석률이 좋았다.

2012년도에도 사목방침에 따라 활동하겠다. 기도하는 고급단원이 늘어나도록 Pr. 별로 소성무일도 기도를 주회합 후에 바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2012년의 중점 목표로는 냉담자 회두권면과 협조단원의 행동단원화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성모성심 꾸리아

교육, 피정, 행사는 성삼의 궁전 꾸리아와 같이 해서 큰 차이는 없으므로 간단하게 발표하겠다.

꾸리아의 운영은 Pr. 단장 간담회를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전년도에 부족한 출석율에 대해 협조를 구했고 출석율이 80%정도로 되었다.

예비신자의 경우 입교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새신자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보는 중요한 것 같다.

2012년에는 Pr. 단장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단원과 고급단원을 늘리는 것을 중점목표로 하겠다.